

화장실 고치러 온 업자 “창틀도 바뀌 드리죠”

LH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비 샌다

가구당 600만원 한도 채우려 불필요 공사 부추겨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택 개보수'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개보수 요청보다 공사 규모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 전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시, 전남도, 각 자치단체가 대상주택 사전조사, 공사 규모, 완공 후 확인 등을 업체에 일임해 이같은 '사업 부풀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7일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비 140억원, 시·도비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 자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광주 3개 사업자, 전남 33개 사업자가 선정돼 광주 139가구, 전남 1788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보수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공사 과정에서 주택 소유자가 요청한 주택 개보수 내용과 다른 공사 항목도 포함할 것을 공급자에게 부추기거나 동의도 없이 공사를 벌여 말썽이 일고 있다.

LH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택 개보수 사업자들이 높은 수익을 챙기기에 공사금액을 고의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서구 A씨는 주민자치센터에 화장실 개보수 및 싱크대 교체를 요청했다. 사전 답사를 나온 공사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베란다와 거실의 창호, 새시도 함께 공사해주겠다고 A씨를 설득했다. 결국 A씨는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라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는 준공 후 사전에 요청하거나 협의가 안 된 조명 교체 비용이 공사내역서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공사업자와 LH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어떻게 사시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임의로 판단해 예산에 반영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의 이웃에 사는 B씨도 애초에

는 화장실 개보수와 싱크대 교체를 요청했지만, 공사업자의 설득으로 창호와 화장실 개보수만 끝낼 수 있었다.

업체들이 가구당 최대 예산인 600만원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까지 끼워넣고 있는 것이다. 남은 예산은 국고로 반환돼 다른 수급자의 주택 개보수에 쓰여야 하지만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수혜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올해 광주의 경우 200여 가구가 주택 개보수를 신청해 60여 가구가 탈락했다.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공사금액이 남아 주택 소유자 동의 없이 공사업체가 다른 항목을 추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터넷서 쌀 산 것처럼... 23억 카드깡 일당 덜미

수익 부당이득 쟁거

인터넷 홈쇼핑에서 쌀 산 것처럼 가장해 23억 원 상당의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을 하고 수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7일 현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카드깡을 해 준 뒤 수수료로 2억 5000만원을 챙긴 김모(37)씨 등 3명을 여의전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또 이를 방조한 나주 한 미곡처리장 대표 전모(50)씨와 같은 지역 또 다른 미곡처리장 담당자 박모(49)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4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카드깡 일당업자들이 수집한 신용카드 할인 의뢰자 1241명의 정보를 이용해 23억 3000만원 어치의 쌀을 구매, 11%의 수수료를 떼고 현

금화해주는 수법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챙긴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4%를 카드정보 일당업자들에게 지급한 뒤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주시 북구 풍향동 한 주차장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카드로 인터넷 홈쇼핑 가맹점인 나주 미곡처리장 2곳의 쌀을 산 뒤 다른 도매업체 등에 되팔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카드깡을 의뢰한 사람들은 신용이 낮아 25%의 수수료를 떼면서도 급전이 필요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의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무작위 전화 또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깡’ 의뢰자를 모집한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업자를 뒤쫓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벤처 여검사’ 구속

알선수재 혐의... 각종 의혹 규명 초점

‘벤처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36) 전 검사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임경섭 영장전담판사는 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이 전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0~11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장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도 항공료, 회식비 등을 결제한 700여만원과 벤츠 S350 리스비용 3800만원 등 4500만원을 받고, 사별 핸드백 구입비용 540만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부

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20분가량 진행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검사는 금품수수는 인정하면서도 최 변호사와의 친분을 거론하며 사건청탁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검사는 또 임신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이 전 검사가 구속됨에 따라 최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변호사가 검사장급 인사 로비명목으로 이 사건 의뢰인에게 금품을 받아갔다거나 또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게 자신의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 승소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수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이 7일 전국 최초로 입찰법정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법원 측은 경매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중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서 교통사고 시립예술단 객원 사망

7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0분께 여수시 웅천동 웅천지웰아파트 삼거리에서 여수시립예술단 단원 정모(30)씨가 운전하는 베르나 차량과 홍모(31)씨의 카니발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베르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객원 조모(30)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운전자 정씨와 객원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새벽 아파트 불 대피 소동

7일 새벽 1시43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자고 있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불은 아파트 베란다와 작은방 등 30㎡를 태워 16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용감한 10대 대학생

달아나던 흥기 강도범 아파트 현관서 붙잡아

10대 대학생이 강도를 붙잡았다. 귀가하던 조선대생 A(19)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다가 “도둑이야!”이라 여성의 비명을 들었다. 이어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내려오던 20대 강도와 맞닥뜨렸다. A씨는 주저없이 계단에서 현관으로 뛰어오던 강도의 옷과 팔을 잡아 넘어뜨려 붙잡았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최모

(26)씨 이날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의 12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에 막 들어가려던 정모(62)씨를 흥기로 위협, 자동차 열쇠 등을 빼앗았다. 때마침 정씨 부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다가 놀라 비명을 질렀다. 비명을 놀란 최씨는 곧장 계단을 통해 달아났다. A씨에게 붙잡힌 것이다. 광주북부경찰은 흥기를 들고 주민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최씨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입찰법정 실시간 중계 광주지법, 전국 최초

법원이 경매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법정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7일 “전국 법원 최초로 입찰법정 실시간 중계서비스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찰할 때 입찰법정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통해 입찰봉투 개봉 장면과 함께 입찰물건 사진, 최고가 입찰자가 써낸 금액 등을 입찰 법정 안팎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결혼 반대한다” 남친 어머니 살해

둔기로 수습차레 때린후 불 지르고 달아나

서부경찰, 40대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7일 “결혼을 반대하는 남친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김모(여·41)씨를 살인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모 편의점의 쪽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정모(여·60)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나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예전 남친친구

안모씨(35)의 어머니인 정씨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가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최근까지 안씨와 동거했으며, 정씨는 김씨가 나이가 많고 딸도 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교제를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인근 주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씨는 안씨가 일하고 있던 편의점에 자주 들렀으며, 안씨의 어머니인 정씨와 말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경찰은 이날 오후 3시께 경기도 화성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으로 올라온 뒤 광주에 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업원(19)이 “한 여성이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불길이었다. 김씨가 왔다”는 진술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근거로 김씨를 추궁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택시에 구토 세차비 문제로 주먹질

○...술에 취해 택시에 구토한 30대 남성 손님과 40대 기사가 세차비 문제로 실랑이 끝에 나란히 경찰서행.

○...7일 광주서부경찰에 폭행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 주모(46)씨와 손님 조모(32)씨는 지난 6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터미널 앞 택시정류장에서 조씨의 구토 문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이날 술에 취해 귀가하면서 주씨의 택시 조수석 창문에 구토했고, 주씨는 조씨가 세차비를 주지 않자 서로 주먹다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 재수 | vs | 편입 |
|--------------------|----|---------------------------|
| 1학년입학 / 4년재학 | | 3학년입학 / 2년재학 |
|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 |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
| 각 군별 1회 지원 | |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12월 19일